공적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된 신체이식이 이미지관리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

전정혜[†] · 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Directional Relationship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Image Management Behaviors

Jung-Hye Jeon[†] · Tai-Soon Yoo

Dept. of Fashion Desig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접수일(2011년 8월 1일), 수정일(2011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4일)

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s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s causal variables to identify their direct or indirect effects. This study is an aggregat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that reveals the relations of how these factors turn to be the image management behavi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962 women from the ages of 20 to 59 who live in the Daegu and Gyeongbuk areas. Th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programs such as AMOS 16.0 and SPSS 18.0 for Window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self-consciousness had a direct effect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whereas it affected image management behaviors directly or indirectly. This means that as women become aware of others' attention, they recognize the social importance of appearance, internalize ideal social standards, and observe and evaluate their own bodies from a third person's viewpoint regarding the standards for a body required by society; in addition, these procedures lead them to manage their image behaviors. Second,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had a direct influence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however, they had an indirect effect on image management behaviors. This demonstrates that body consciousness plays a role as a mediator between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the image management behaviors. Third, it appeared that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directly affected image management behavior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was identified as a causal variable that exerts immediate influence on image management behaviors where the mor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women objectified themselves as the body standards that created further image management behaviors.

Key words: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mage management behaviors; 공적자기의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 의식, 이미지관리행동

I. 서 론

[†]Corresponding author

E-mail: jjh0211@hanmail.net

시각적인 문화가 더욱 발달한 21세기는 TV를 비롯

한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되어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이 개인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강화되고 있다(Rudd & Lennon, 2000). 이에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인은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대중매체에서 전파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인 이상미를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좀 더 아름다운 이미지를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기대 수준에 따라 객체화(objectification)하여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감시하기도 하며, 정형화된 신체 외모를 강요받거나 비교, 평가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가 사회문화적 기준이 만들어 내는 이상적인 신체에 가까우면 긍정적 신체이미지를 갖게 되고, 반면에 그 기준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회적인 이상미와 자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체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특정 행동 및 노력을 하게 된다(Thompson & Stice, 2001).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 현상은 운동장려와 건강에 대한 관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발생시켜, 자신의 평가나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유발하기도 한다(Stice et al., 1994). 또한 외모유지행동으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과 성형수술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고, 어떤 경우에는 신체이미지에 관한 혼란감으로 인해 치료적 필요성의 잠재적 가능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Shisslak et al., 1998).

Thornton and Maurice(1997)에 따르면 공격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의 경우 사회문화적 가치에 매우 민감하여 이상적 외모에 대한 집착이 높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체만족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그에 따른 외모 꾸미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ruickshank(1971)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지각하고, 그에 따른 결점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의복, 화장, 헤어, 피부관리, 체중조절 그리고 성형수술 등의 이미지관리행동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모관리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개인의 외모관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모관리노력을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변화는 타인과의 관

계에 있어서 호감을 주며 좋은 이미지로 평가되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갖도록 해 준다.

오늘날 사람의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현상은 외모는 명백히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념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형성되면서 생겨났고, 사람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점차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신체외모와 관련된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외모를 관리하는 메이크업, 헤어미용, 피부미용 등 뷰티서비스산업이 이대로 성장해 나간다면, 3년 후에는 7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After three", 2010).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격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Son, 2007), 공격자기의식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많이 내재화 할수록 신체에 대한 왜곡증상이 높게 났으며(Moon, 2002), 이러한 공격자기의식이 강한 집단이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3).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몸을 객체화하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경험하게 되며(An, 2007), 그에 따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Jeon, 2010). Kim(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사회적 비교 이론에 근거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미와 자신의 외모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자기 개념과 신체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사회적 이상미와의 불일치로 인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체중조절, 의복·미용제품 구매 등과 같은 신체적 외모를 향상하고자 하는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Jeon, 2008; Park, 2010; Seol, 2010).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볼 때 대부분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을 연구별 특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보았으며,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이미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변인 중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요인이 더 큰지 불명확하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대생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모가꾸기는 젊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로 외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공적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이미지관리행동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통해 이미지관리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동시·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최종적으로 이미지관리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과 변인들 간의 관계양상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성인여성의 이미지관리행동 관련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소비현상의 적극적인 주체인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심리를 이해하는데도 보탬이 되어, 사회문화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신체불만족과 자아존중감 상실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그들의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극복하고 보다 사회적인 바람직한 자아의식을 형성하여 스스로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이미지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적자기의식

Fenigstein et al.(1975)은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을 ‘객관적 자기자각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이 주의(attention)의 초점을 자아(self)에 두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향’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공적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 가령 인상형성, 외모, 개인의 외적 행동양식, 예의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자기표현과 관련된 자기의 측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라 하였다. 즉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Schlenker & Weigold, 1990).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싶지 않다’ 또는 ‘타인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승인욕구가 그들의 대인행동을 좌우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 승인여부가 자신의 어떤 인상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고하고 있다(Miller et al., 1982). 또한 이들은 사회적 요구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Schlenker & Weigold, 1990), 신체불안과 신체불만족이 높았으며,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게 되고 외모에 대한 집착이 더 높다고 밝혔다(Thornton & Maurice, 1997).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높아 의복을 구입하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외모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남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었다(Lee & Burns, 1993). Thornton and Maurice (1997)의 연구에 따르면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비교효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체불안이 높았으며,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적자기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더 많이 감시하는 신체감시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on, 2007), Son(2008)은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아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더 많이 지각하고 그 결과 신체왜곡으로 인한 성형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Moon(2002)의 연구에서도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왜곡증상이 높게 나타나 공적자기의식이 신체왜곡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공적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높으므로 사회문화적 영향과 외모관리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2003),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지에 초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Froming & Carver, 1981). 실제로 그들은 타인으로부터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Turner et al., 198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재화하며 자신의 신체를 더 많이 감시, 평가하여 그 결과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체적 아름다움과 외모를 가꾸는데 다양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표준의 인식과 내면화를 통해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관점이다(Heinberg et al., 1995). 신체적 아름다움의 이상은 특정 시대의 미적 기준과 일치하면서 변화해 왔고,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상적 신체'라는 형태 속에 내면화된 정신적인 태도와 의식을 가지는 '사회적 신체'가 존재하며, 이에 형성된 태도와 의식은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Kaiser, 1990).

우리 문화에서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은 대중매체를 통해 강화되고 있고, 대중매체를 통해 촉진되는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Heinberg et al., 1995). 즉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모습들과 비교하게 하고 외모와 신체에 대한 느낌을 더욱 의식하게 하며, 개인의 신체평가나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usumano & Thompson, 1997). 이렇듯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사회적 기대수준에 따라 자신의 신체외모를 평가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외모를 조정하고 변화시키려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잠재적 힘이 된다. 또한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성을 갖게 하는 부정적 영향력, 외모불안, 우울감, 분노와 행복감 등의 감정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쳐 불만스러운 신체부위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Thompson & Stice, 2001).

Sinclair(2006)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많아지며, 사회문화적 외모기준은 실제로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이상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할 때 자신들의 신체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비교과정이 여성의 신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einberg et al., 1995). Koh and Lee(2004)는 자신의 가치로 수용한 사회의 미적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촉진시킨다고 하

였으며, Jeon(2010)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은 신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게 현대인들이 이미지관리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3. 객체화된 신체의의식

객체화 이론은 Fredrickson and Roberts(1997)와 같은 여성 사회학자들이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객체화 이론에 의하면 여성들이 성적으로 객체화하는 성적 대상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면 사회적 환경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객체로 인식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제3자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자기객체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 관찰자로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바라봄으로써 자기가치와 정체성의 근원을 신체적 외모에 두려는 경향을 증가시켜 체중,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외적인 신체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McConnell, 2001).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을 응시의 대상으로 인식한 여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눈으로 객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자기객체화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몰두하게 되어, 신체적 외모에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대중매체부터 전달된 이상미와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지속적으로 감시, 평가하게 된다. 습관적인 자기감시는 외모불안을 증가시키며, 내적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이상미와의 자기비교는 자신의 외모가 획득 가능성이 어려운 이상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자기신체에 대한 수치감을 형성하게 된다(Strelan & Hargreaves, 2005). McKinley and Hyde(1996)는 이러한 객체화를 통해 느끼는 수치감을 신체에 대한 특정 감정이 아닌 자아측면에서 포괄하는 것으로, 신체외모를 둘러싼 좌절감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Calogero et al.(2005)에 따르면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내면화가 자기객체화에도 영향을 주며, 자기객체화에 의해 간접적으로 내면화되어 날씬

한 외모를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McKinley and Hyde (1996)는 여성들이 이처럼 객체로서 자기신체를 바라보고 이런 심리적 경험을 지지하는 신념을 ‘객체화된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이라고 지칭하였다.

객체화 관련 연구들은 객체화 수준이 외부로부터 형성된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신체에 대한 수치감과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며(Noll & Fredrickson, 1998), 또한 이상적 기준과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신체감시 및 신체수치심의 경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식이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cKinley, 1998; Noll & Fredrickson, 1998). 이것은 신체사이즈가 클수록 신체 수치감과 신체불만족이 증가한다는 McKinley(1998)의 연구에서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미적 기준과의 불일치가 신체불만족과 수치감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좌절감이 자신의 신체외모를 비판적인 관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습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Morley & Staska, 2001), 그리고 더 나아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다양한 미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이미지관리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Kretchmar, 2001; McKinley & Hyde, 1996).

An(2007)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매개로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eon(2010)은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 이미지에 비교할수록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대중매체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여성의 몸을 객체화하는 성적 대상화를 경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모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신체외모가 중요해지고 있는 배경을 사회문화적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객체화 이론을 통해, 신체외모에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가지고 외모관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Kim(2007)의 연구결과에서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객체화 경향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하게 생각하고, 외모관리행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른 사회적 이상미를 내면화함으로써 형성되는 자기객체화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아울

러 이미지관리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미지관리행동

외모관리가 하나의 자기관리능력으로 평가받는 요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는 것은 다양한 면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인사담당자의 57%가 직책에는 적합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지원자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To promotion”, 2010). 외적인 아름다운 외모는 자기 자신이 노력을 통해 획득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Thomas & Thomas, 1990), 이렇듯 외모를 가꾸기 위한 개인의 의지는 의복이나 화장,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는 것에서부터 피부관리, 체형관리, 성형수술 등의 이미지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이제 20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30~40대에서 50~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성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실제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과 다이어트로 몸매를 가꾸고 피부관리로 젊음을 유지하며 자신을 꾸미는데 주저함이 없다. Park(2010)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부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와 달리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on(2008)은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높아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더 많이 지각하고 그 결과 신체왜곡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Chung(2004)에 따르면,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과 자기신체이미지의 불일치로 인하여 불만족이 높아지고, 개인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치와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자기감시와 불만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여성들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외모관리나 신체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화장, 운동, 피부관리 및 체중조절과 같은 일상적인 것부터 미용성형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통해 원하는 외모를 갖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Rudd & Lennon, 2000).

이상에서와 같이 여성과 관련된 외모연구들은 살펴보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자기의식과 대중매

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미를 인식, 내면화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사회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신체적 외모를 감시, 평가하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이미지관리행동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자기의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원인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설정하여 직·간접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공적자기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객체화된 신체의식,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측정도구

1) 공적자기의식

공적자기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의식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Fenigstein et al.(1975)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5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공적자기의식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6으로 나타났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 기준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Heinberg et al.(1995)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인식 4문항, 내면화 6문항으로 총 10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인식 .69, 내면화 .87로 나타났다.

3) 객체화된 신체의식

자신의 신체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여,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습관적으로 감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McKinley and Hyde(1996)가 제작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신체감시성 5문항, 신체수치심 5문항으로 총 10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문항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신체감시성 .81, 신체수치심 .68로 나타났다.

4) 이미지관리행동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적·신체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Lennon and Rudd(1994), Rudd and Lennon(2000), Hwang and Kim(2006) 등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의복관리 6문항, 화장관리 6문항, 모발관리 3문항, 피부관리 4문항, 체형관리 4문항, 미용성형 3문항으로 총 26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미지관리행동 문항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의복관리 .79, 화장관리 .75, 모발관리 .67, 피부관리 .76, 체형관리 .80, 미용성형 .63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59세의 성

Fig. 1. Reserch model.

인여성을 대상으로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962부(20대 249부, 30대 251부, 40대 240부, 50대 22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이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AMOS 16.0과 SPSS 14.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고자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으며, 연구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 결과 및 고찰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내 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모형

내에서 경로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이미지관리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p<.01$)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ig. 2>와 같은 간명한 수정 연구모형이 최종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0.9 이상이 되어야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는 GFI, AGFI, NFI에서 0.90(GFI=0.94, AGFI=0.90, NFI=0.91) 이상이 나타났고, 0.1 이하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로 판단되는 RMR에서도 RMR=0.03으로 제시되어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2>에서 제시한 모수의 추정치 결과, 지표변인 값이 모두 유의수준($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지표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구성타당도가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Fig. 2>의 모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는 <Table 2>와 <Fig. 3>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를 보면, 모든 경로가 유의수준($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공적자기의식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

공적자기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직접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Public self-consciousness	1										
2. Awareness	.322***	1									
3. Internalization	.355***	.552***	1								
4. Body surveillance	.507***	.317***	.410***	1							
5. Body shame	.381***	.315***	.410***	.360***	1						
6. Clothing management	.439***	.369***	.449***	.512***	.385***	1					
7. Makeup & hair styling	.305***	.202***	.255***	.398***	.271***	.549***	1				
8. Hair management	.152***	.144***	.118***	.197***	.219***	.470***	.464***	1			
9. Skin care	.296***	.281***	.338***	.392***	.236***	.565***	.507***	.397***	1		
10. Body shape management	.175***	.179***	.194***	.226***	.372***	.393***	.336***	.465***	.279***	1	
11. Plastic surgery	.271***	.226***	.375***	.317***	.311***	.440***	.385***	.293***	.393***	.255***	1
Total (N)	962	962	962	962	962	962	962	962	962	962	962
Mean	3.62	3.95	3.33	3.20	2.74	3.22	3.25	2.78	3.70	2.83	2.75
S.D	.64	.59	.82	.58	.74	.65	.69	.85	.75	.80	.96

*** $p<.001$

Fig. 2. Structural model.

Table 2. Parameter estimates model

Parameter	U. E.	C. R.	t-value	S. E.
λ_{211} Public self-consciousness $\rightarrow$ Public self-consciousness	1.00	-	-	1.00
λ_{221}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rightarrow$ Awareness	1.00	-	-	.67
λ_{222}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rightarrow$ Internalization	1.72	.11	15.197***	.83
λ_{311}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rightarrow$ Body surveillance	1.00	-	-	.70
λ_{312}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rightarrow$ Body shame	1.04	.07	15.361***	.57
λ_{p11} Image management behaviors $\rightarrow$ Clothing management	1.00	-	-	.83
λ_{p21} Image management behaviors $\rightarrow$ Makeup & hair styling	.88	.04	21.627***	.69
λ_{p31} Image management behaviors $\rightarrow$ Hair management	.90	.05	17.586***	.57
λ_{p41} Image management behaviors $\rightarrow$ Skin care	.95	.04	21.466***	.68
λ_{p51} Image management behaviors $\rightarrow$ Body shape management	.73	.05	14.900***	.49
λ_{p61} Image management behaviors $\rightarrow$ Plastic surgery	.99	.06	16.932***	.56
γ_{11} Public self-consciousness $\rightarrow$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27	.03	10.966***	.44
γ_{21} Public self-consciousness $\rightarrow$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30	.03	11.750***	.48
γ_{31} Public self-consciousness $\rightarrow$ Image management behaviors	-.18	.06	-3.164**	-.21
β_{12}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rightarrow$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53	.05	10.529***	.52
β_{22}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rightarrow$ Image management behaviors	1.26	.11	11.257***	.94

** $p < .01$, *** $p < .001$

U. E.: Un-standardized Estimates, C. R.: Critical Ratio, S. E.: Standardized Estimates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_{11}=.27$, $t=10.966$). 이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요구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문화적 가

치를 더 많이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더 많이 관찰하며,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는 Thornton and Maurice(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공적자기의식은 객체화된 신체의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_{21}=.30$, $t=11.750$). 이것은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더 많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다는

Fig. 3.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신의 내적 상태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기준이나 기대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경향성을 가진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공적자기의식이 낮은 사람보다 타인의 관심이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신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공적자기의식이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나 신체매력의 비교효과에 더 민감하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arver & Scheier, 1981).

공적자기의식은 이미지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_3 = -.18$, $t = -3.164$). 공적자기의식은 이미지관리행동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나, 간접효과에서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공적자기의식이 이미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과에서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이미지관리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으로 공적자기의식과 이미지관리행동 관계에서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더 많이 관찰하는 신체감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신체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져 성형의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on, 2008). 외모가 경쟁력인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자신의 신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갖게 되는 자신의 신체적 불만족(McKinley, 2004)을 개선하고자 이미지관리행동에 열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1 = .53$, $t = 10.529$). 이것은 이상적인 미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사회가 요구하는 신체기준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체에 대해 감시, 평가하는 객체화된 신체의식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신체 표준을 인식, 내면화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다는 Jeon(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 스스로를 객체화시키고 있다는 Ko and Chung(1992)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외모에 대한 내면화가 객체화에 영향을 준다는 Calogero et al.(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나 왜곡 간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Cusumano & Thompson, 199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매개로 이미지관리행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52 \times .94 = .49$, $t = 7.683$). 이것은 사회적 이상미에 대한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으면, 자신의 신체외모를 비교, 평가하려는 객체화가 높아져 이미지관리행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Aubrey, 2004)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외모를 인식, 내면화하여

몰두하도록 사회화되면, 외적 외모에 대한 습관적인 감시, 이로 인한 신체수치심 그리고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다양한 이미지관리를 하게 된다는 객체화 이론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여성들이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지각하고 내면화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이미지관리행동과의 관계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이미지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2=1.26$, $t=11.257$). 이것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이미지관리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는 경향이 클수록 이미지관리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2007). Jeon (2010)에 따르면 신체감시성이 의복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수치심은 체형 및 체중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신체를 감시, 평가하는 객체화된 신체의식 경향이 클수록 이미지관리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조정·변형하려는 행위

이면에는 자신의 신체외모를 스스로 객체화하기 때문이라는 객체화 이론가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McKinley, 1999). 이로써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과 불만족으로 의복관리, 체형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모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예측변인의 직·간접 및 총효과

<Table 3>은 공적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된 신체의식 원인변인이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및 총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적자기의식→이미지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이미지관리행동’, ‘객체화된 신체의식→이미지관리행동’의 경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지관리행동에 대해 공적자기의식은 직·간접효과를 모두 나타내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간접효과,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객체화된 신체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 total effects of the research variables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Path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44***	.44***	-	-
Public self-consciousnes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71***	.48***	.23***	•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23
Public self-consciousness→ Image management behaviors	.46***	-.21**	.67***	•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mage management behaviors: .22 • Public self-consciousnes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mage management behaviors: .45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52***	.52***	-	-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mage management behaviors	.49***	-	.49***	•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mage management behaviors: .49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mage management behaviors	.94***	.94***	-	-

** $p<.01$, *** $p<.001$

의식을 매개로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49)가 공적자기의식이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매개로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45)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공적자기의식보다 이미지관리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이 직·간접적으로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 변인 중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이미지관리행동에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94)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공적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이미지관리행동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개별적이었던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최종적으로 이미지관리행동으로 나타나는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자기의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지관리행동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신체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제3자의 시각으로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이미지관리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지관리행동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이미지관리행동 사이에서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매개 역할을 확인했다.

셋째,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이미지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신체적 기준으로 객체화하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이미지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나,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이미지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

변인임을 확인했다.

모든 변인이 직·간접적으로 이미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 변인 중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이미지관리행동에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성인여성의 이미지관리행동 관련 변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가를 경로와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관계구조에 관한 정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본수집을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성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와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fter three years the beauty services industry 7 trillion won market. (2010, September 30). *Maeil Business Newspaper*. Retrieved October 15, 2010, from <http://news.mk.co.kr>
- An, N. Y. (2007).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 Aubrey, J. S. (2004). *The media's impact on self-objectification, body emotions, and sexual dysfunction: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Calogero, R. M., Davis, W. N., & Thompson, J. K. (2005).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Sex Roles*, 52(1-2), 43-50.
- Carver, C. S., & Scheier, M.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
- Chung, J. A. (2004). *Social comparison with beautiful model image in advertising and its effects on buying int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 Cruikshank, W. M. (1971). *Psychology of exceptional children and yout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9-10), 701-721.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 21(2), 173–206.
- Froming, W. J., & Carver, C. S. (1981). Divergent influences of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 a compliance paradig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2), 159–171.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wang, J. S., & Kim, Y. H. (2006).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on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3), 143–155.
- Jeon, H. J. (2010).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body estee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Jeon, J. G. (2008). *Usage of appearance management Service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and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 Kim, Y. (2007).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pressure, internalization ideal beauty stereotyp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o, S. J., & Chung, J. K. (1992). Beauty and oppression-the impacts of cultural myth on wome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8, 33–75.
- Koh, A. R., & Lee, S. G. (2004). Formation models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s as related to pubertal physical growth.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89–203.
- Kretchmar, J. L. (2001).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college-age women of varying physical activity leve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North Carolina.
- Lee, M. H., & Burns, L. D. (1993). Self-consciousness and clothing purchase criteria of Korean and United States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32–40.
- Lee, S. W. (2003).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public-private self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2), 94–117.
- McConnell, C. A. (2001). *An object to herself: The relationship between girls and their bod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McKinley, N. M. (1998). Gende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body 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ctual/ideal weight discrepancy. *Sex Roles*, 39(1-2), 113–124.
- McKinley, N. M. (1999). Women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Mothers' and daughters' body experience in cultural, developmental, and family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760–769.
- McKinley, N. M. (2004). Resisting body dissatisfaction: Fat women who endorse fat acceptance. *Body Image*, 1(2), 213–219.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Miller, F. G., Davis, L. L., & Rowold, K. L. (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63–368.
- Moon, J. S. (2002). *A study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lization and the body imag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according to the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the appear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3(4), 269–279.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623–636.
- Park, J. H. (2010). *Study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y the patterns of female life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 University, Busan.
- Rudd, N. A., &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0). Self-consciousness and self-presentation: Being autonomous versus appearing autonomo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4), 820–828.
- Seol, H. J. (2010).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eauty behavior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elements of*

- the growing generation concerning appear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Shisslak, C. M., Crago, M., Mcknight, K. M., Estes, L. S., Gray, N., & Parnaby, O. G. (1998). Potent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weight control behavior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irl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4(3), 301-313.
- Sinclair, S. L. (2006). Object lesson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1), 48-68.
- Son, E. J. (2007).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and the attitude of body image on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1), 63-81.
- Son, E. J. (2008). The influence of self-esteem, physical comparison,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on the eating disorder symptoms of college ag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885-901.
- Stice, E., Schupak, N. E., Shaw, H. E., & Stein, R. I. (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836-840.
- Strelan, P., & Hargreaves, D. (2005). Reasons for exercise and body esteem: Men's responses to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53(7-8), 495-503.
- Thomas, F. C., & Thomas, P. (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81-183.
- Thornton, B., & Maurice, J. (1997). Physique contrast effect: Adverse impact of idealized body images for women. *Sex Roles*, 37(5-6), 433-440.
- To promotion need a beautiful appearance-Newsweek. (2010, July 21). *Seoul Newspaper*. Retrieved September 10, 2010, from <http://www.seoul.co.kr>
- Turner, R. G., Gilliland, L., & Klein, H. M. (1981). Self-consciousness, evalu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2), 182-190.